

대한속기협회소식

<http://www.steno.or.kr>



제21호 2012. 1. 27.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발행/발행인:고흥길/편집인:정순화/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전화:788-2371~6. 788-3081~6. FAX:788-3571

이사장 신년사



사랑하는 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속기협회 이사장 이경식입니다.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는 말로 인사를 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항상 새해에는 어떤 일을 해야겠다 혹은 어떤 소망을 이루겠다는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하기 마련인데 한 달쯤 되면 그 다짐들이 흐지부지되고는 합니다. 그러면 한 달쯤이 지나가는 지금 시점을 다시 시작점으로 삼아서 목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 개최된 세미나 때는 국회 사정으로 국회 회원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해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오히려 일반회원의 참석률이 높아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일반회원의 참여률이 높아지면서 점점 협회 회원이 다양화되는 것 같습니다. 회원의 다변화와 좀 더 활기찬 협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11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및 IPRS에 참가하였는데 그때 우리 회원이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국제경기대회에 처음 참가한 것이 3년 전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인터스테노였는데 두 번째 참가 만에(인터스테노에서 속기경기대회는 격년제로 열립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이 한국의 속기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모여 각각 다른 언어로 속기 실력을 겨룰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참 좋은 일인데 거기다 우리나라가 좋은 결과까지 얻었으니 이사장인 저로서야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장인 저도 참가하여 그 열기를 느끼고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영광스러움이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있으면서 우리 협회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찾아야 할까 고민했던 것이 벌써 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발전해 나가는 우리 속기협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속기인들이 있기에 이사장인 저로서는 그 기대가 무겁고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를 발판 삼아 도약의 기회로 삼고 우리 모두 합심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는 1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기를 바라며 임진년 올해는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이경식

이사진 신년사

여러분 모두 2012년 새해에는 용이 하늘을 향해 웅비하듯이 힘찬 도약을 하는 중요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용띠 해에는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88서울올림픽도 용띠 해에 개최되었고, 희망의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개막하며 IMF 경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도 바로 용띠 해였습니다.

**총무·재정
이사
김 덕 진**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가 그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온라인 세대에 태어난 젊은 층)'와 '디지털 이주자(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이전 세대)'들이 반목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속기 분야에도 머지않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 열정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미래를 대비하고 함께 고민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난다는 비룡승운(飛龍乘雲)이라는 말처럼 회원 여러분께서도 올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니하오(nihao)!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이사 손숙자입니다.

올해 임진년은 용의 해입니다. 용은 날짐승, 들짐승, 물짐승의 복합적인 형태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기상천외한 모습과 천변만화하는 조화를 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 변화의 기운이 강한 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업·회원부의 계획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5월쯤에 세미나를 하고 또 더불어서 속기무료강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었는데 올해도 어김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속기무료강습을 새로이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권유해 주셔서 일반인들에게도 속기라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많은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업·회원
이사
손 숙 자**

**홍보이사
정 순 화**

안녕하십니까, 홍보이사 정순화입니다.

저희 홍보부에서는 '속기계'와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가칭 '역사의 순간들'이라는 책자를 5월 중 발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속기계가 보다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또 회원들끼리 공유해야 할 사항이나 알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든지 주저 마시고 홍보부로 연락주시면 '속기계'나 '소식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회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제부 이사 최윤정입니다.

국제부의 주된 사업인 인터스테노(INTERSTENO) 회의에 대해 잠깐 소개드릴까 합니다.

인터스테노는 속기나 타이핑과 같은 정보처리 종사자들을 위한 비영리 국제단체입니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총회와 중앙위원들의 모임인 중앙위원회(Council Meeting)가 격년으로 열리고 각국 의회속기사들의 모임인 IPRS가 회의 기간 동안 함께 열립니다. 총회 기간에는 각국의 속기계 소식교환과 함께 중요사항이 결정되고 특히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속기·타자계의 발전을 위한 발제문을 제출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총회에 올릴 사항들을 논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제이사

최 윤 정

용 위에 신선이?

임진년, 용의 해 벽두에 날아든 신선한 소식 하나.

4+1, 얼핏 무슨 라면류 번들 플러스 1 행사를 떠올리시겠지만 천만에, 신성한 올해 우리 과 신입 후배들의 성비(性比).

제가 무슨 성 차별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동안 한참 우리 과 성비 저울추가 기울어져 있었기에 반가운 마음에서 떠오른 숫자배열.

적당한 성비는 성과 달성에 한몫을 한다고 생각해 왔고 프랑스 경찰은 순찰차에 남녀 경찰을 배치한다네요. 그게 업무능률을 배가시킨다는 생각에서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선한 소식.

우리 이경식 과장님이 승진하셨어요.

그에 걸맞은 보직까지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이어가시길..

속기협회에서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속기무료강습을 하기로 했다니 이는 세 번째 신선.

그리고 네 번째 신선으로 2년간 새로운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공부 더 하고 오랍니다.

용 위에 신선(神仙)이? 아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 신선(新鮮)일 터- 올해는 모두로부터 더 많은 신선한 소식이 들려오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쁜 후배들에게 당부 하나 할까요?

우리 모두 한자 공부합시다!!!

**자격심사-
연구위원장**

정 란



김영대

백종인

안상훈

이태범

정현석

<질문>

1. 당신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2. 별명과 그 이유를 공개해 주세요!
3.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가 있나요?
4. 속기와 만나게 된 계기는?
5. 속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
6. 국회 합격 소감은?
7. 첫 월급을 받으면 하고 싶은 일은?
8. 입사 1년 안에 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9. 선배님들께 한마디!
10.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혀 주세요!

● 김영대

1. 양과.
2. 한민관.(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3. 여행, 사진.
4. 대학 시절 전공과 다른 진로를 찾다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5. 지방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듯합니다.
6. 아직은 실감나지 않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7. 가족 여행 떠나기.
8. 동기들과 여행 가기.
9. 부족한 점도 많고 실수도 하겠지만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10. 국회속기사 준비하며 가졌던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신입의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새내기들에게 묻다!

1. 당신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2. 별명과 그 이유를 공개해 주세요!
3.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가 있나요?
4. 속기와 만나게 된 계기는?
5. 속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

6. 국회 합격 소감은?
7. 첫 월급을 받으면 하고 싶은 일은?
8. 입사 1년 안에 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9. 선배님들께 한마디!
10.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혀 주세요!

● 백종인

1. 꿈꿈이.
2. 백인종. (피부도 하얗고 이름도 거꾸로 하면 백인종이라서)
3. 영화관람, 등산.
4.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5. 회사 이곳저곳 원서 넣고 있지 않을까요?
6. 처음 목표로 했던 국회속기사가 되니 정말 행복했고 굉장하 뿌듯했습니다.
7. 가족들에게 선물부터.
8. 저축해서 모은 돈으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싶습니다.
9.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착한 후배가 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10. 국회속기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 안상훈

1. 속기의 달인 오타 김병만!(속기의 달인이 되고 싶은, 아직은 부족한 속기사입니다.)
2. 내 이름은 안상순. (개명 전 이름이 안상순)
3. 한강에서 자전거 타기.
4. 정말 우연히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5. 열심히 돈을 모아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6. 마지막 도전이었는데 합격해서 정말 기쁩니다.
7. 공부하면서 도움 주셨던 분들께 술 사야죠.
8. 국회속기사 자격으로 속기대회 나가서 입상해보고 싶습니다.
9. 무조건 충성하겠습니다.
10. 국회속기사로서의 제 능력은 한참 부족하지만 노력으로 메우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이태범

1. 젠틀남.
2. 태봉이. 이름 때문이고, 부르기가 쉽다네요.
3. 야구 관람하는 것 좋아하고요, 헬스 해서 몸 만들고 싶어요. 고양이도 길러 보고 싶어요.
4. 기술자격증 배우려다가 정말 우연히 눈에 쏙!
5. 아마도 음식 장사 정도..
6. 아직 실감이 안 나고요. 이제 여름휴가 갈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
7. 월급 타면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8. 우선 운동해서 살 빼야 할 것 같고요. 빨리 업무에 적응해서 들어오는 후배에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9. 제가 가는 길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신 고마운 분들. 선배님들 덕분에 국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10. 제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속기계의 거성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현석

1. 오뚝이.
2. 유해진. (답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3. 영수증 모으기.(무엇을 샀는지 또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어서요.)
4. 학창 시절 국회의사당 견학을 통해 처음으로 속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뉴스에서 국회속기사를 보고 속기와의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 집이 시골이어서 아마 농사를 짓고 있었겠지요?
6.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7.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쓸 것입니다.
8. 1년 안에 국회속기사 업무 잘 적응해서 선배님들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9. 저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국회속기사가 되겠습니다.

이사회 소식

■ 제215차 이사회는 2011년 4월 18일에 개최되어 ● 총무이사의 경과보고를 듣고 ● 부의안건 제1항 2011 속기학술세미나 개최의 건을 상정하여 사업이사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논의 후 2011년 5월 26 ~ 27일, 충청남도 덕산읍 리솜스파캐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속기학술세미나 강사로 김병기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전문위원, 김영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부의안건 제2항 2011년도 인터스테노 총회 준비의 건을 상정하여 국제이사로부터 48회 인터스테노 총회와 국제속기경기대회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1년 총회는 7월 9 ~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예정이며 자격심사·연구위원장으로 부터 전국속기경기대회 겸 2011 파리 인터스테노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자 선발전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1년 5월 11일 10시 국회의정관 전산교육장에서 리얼타임 방식으로 실시하여 최종 3명을 선발할 예정) 인터스테노총회 참가 회원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사장, 의정기록2과장, 국제이사, 총무이사에 위임) ● 부의안건 제3항 홍보발간사업의 건을 상정하여 홍보이사로부터 속기계 발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5월 세미나 일정에 맞추어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인쇄부수를 500부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타 안건으로 이주성 이사와 김점동 이사로부터 전체 회원을 아우르고 협회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법 모색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 제216차 이사회는 2012년 1월 13일에 개최되어 ● 총무이사로부터 2011년도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 부의안건 제1항 제45회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총무이사로부터 개최 일시, 장소 후보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논의 후 2012년 1월 27일(금) 18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부의안건 제2항 2011년도 결산서에 관한 건과 제3항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건을 동시 상정하여 각 부 이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 국제부 사업에 대해 인터스테노 자부담 참가 시 예산 처리 방법에 대한 건의, 자부담 참가자 명단 표기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 사업부 사업에 대해 2011년 결산 시 문광부 지적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 홍보부 사업에 대해서는 소식지 내용 다각화, 지방의회 회원에 대한 배려 의견이 있었습니다. ○ 자격심사·연구위원회 사업에 대해 협회의 새로운 사업 모색에 대한 문광부 지적 사항 전달과 함께 속기무료강습사업에 대한 논의, 속기경기대회 준치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사업결과 보고

▶ 제19회 속기학술세미나가 리솜스파캐슬(충남 예산군 소재)에서 5월 26 ~ 2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총 124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김병기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전문위원, 김영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듣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11년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및 IPRS(2011년 7월 9 ~ 16일)에 본 협회에서는 이경식, 김점동, 손석련, 김덕진, 정란, 간찬기, 조미경, 이해경, 이대선, 김밀알, 김봉철 외 3인의 회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속기 월드 챔피언십의 하이라이트인 리얼타임 경연대회에서 한국의 김봉철 회원(한국스테노)은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총 35개국이 참가한 리얼타임 종목에서 한국은 4인이 참가하여 이한나 회원(한국스테노) 6위, 김진호 회원(한국스테노) 10위, 김밀알 회원(국회사무처) 11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 홍보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 소식을 꾸준히 홍보 및 안내해 오고 있으며 제47호 속기계(2011년도판) 발송과 소식지 제20호를 제작 및 발송하였습니다.

▶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자 최종선발전을 2011년 5월 11일(수)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대회는 국제경기대회 룰에 따라 1분에 180자부터 320자까지 8분간 낭독한 후 수정시간 없이 바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총 32명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룬 결과 선발된 인원은 4명이며 김밀알, 김봉철, 김진호, 이한나(가나다 순) 씨가 선발되었습니다.

회원동정

◇ 승진

이경식(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과장→부이사관(임용예정)
유희연(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속기사무관→서기관(임용예정)

◇ 입사

김영대·백종인·안상훈·이태범·정현석(국회사무처)
/ 2012.01.20

◇ 인터스테노

이경식(국회사무처) / 중앙위원회 위원
손석련(㈜한국스테노) / 교육위원회 위원

◇ 공로연수

최예숙(국회사무처) (2011.08.02)

◇ 퇴직

박순필(국회사무처) 명예퇴직(2011.11.02)

◇ 교육훈련 및 파견

손재옥(국회사무처)
통일연구원(2010.02.09~2012.02.08)
안기철(국회사무처)
국립국어원(2011.02.01~2012.01.31)
정순화(국회사무처)
국내대학원(2010.02.09~2012.02.08)



공지사항

▷ 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입회원서와 함께 가입비 1만 원, 연회비 2만 원, 사진 2매를 총무부로 보내 주시거나 총회 참석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회비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협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를 기대합니다.

▲ 회비납부 : 301-0052-3315-71 농협중앙회국회지점 이경진

연 락 처

총 무 부 02) 788-3085 백순정(총무부장)
 02) 788-4827 이경진(재정부장)

▷ 변경된 근무처나 주소는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회 원 부 02)788-3085 고영린(회원부장)
홍 보 부 02)788-3086 박정현(홍보부장)

▷ 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 주소는 www.steno.or.kr입니다.

자주자주 들러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세요.

▷ 홍보부에서는 속기계(48호)에 실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 : 사진, 연구논문, 속기 실무, 수필, 회상기, 시, 기타 제언 등

그리고 원하시면 광고도 실어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홍보부장 박정현(☎ 02-788-3086)에게 연락 주세요.